



VIP 손님 초청 갤러리투어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展

KEB하나은행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展에 VIP 손님들을 초청해 갤러리투어를 진행했다. 유럽 최고의 왕립박물관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 박물관의 진귀한 소장품을 만나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글 김봉연 기자
사진 임익순 기자

KEB하나은행은 지난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展에 VIP 손님 70여 명을 초청해 갤러리투어를 진행했다.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展은 리히텐슈타인 박물관의 소장품 중 회화, 조각, 공예, 판화, 태피스트리 등 진귀한 작품 12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로 루벤스와 반다이크, 브뤼헬, 요르단스 등 플랑드르 작가의 대표작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을 가장 먼저 반기는 건 동그란 눈에 홍조를 띤 사랑스러운 꼬마 숙녀의 얼굴이다. 루벤스가 자신의 딸인 클라라 세레나 루벤스의 다섯 살 때 모습을 그린 초상화로 국내에는 처음 소개되는 작품이다. 17세기 유럽 최고의 화가로 불린 루벤스는 바로크를 대표하는 벨기에 화가로 역동성과 강한 색감, 그리고 관능미를 추구하는 환상적인 바로크 스타일의 대표적인 화가다.

리히텐슈타인 궁정은 예술품 수집과 미술가 후원을 가장 중요한 가업으로 여겼으며, 수세기 전부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작품 수집을 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루벤스를 포함한 17세기 전후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어 명실공히 유럽 최고의 궁정 컬렉션으로 손꼽힌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초기 박물관의 형태인 '쿤스트카머'를 재현, 색다른 공간에서 리히텐슈타인의 걸작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만족도를 더욱 높여 주었다.

갤러리투어를 마친 VIP 손님들은 "루벤스의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며 "유럽의 역사와 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아트뱅크의 위상에 걸맞게 수준 높은 전시 관람의 기회를 손님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

VIP 손님 초청

트렌드를 꿰뚫어보는 자산관리 세미나 & 아트 세미나

KEB하나은행은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손님 초청 자산관리 세미나와 아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과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는 미술 시장 트렌드를 전달하는 기회로, 손님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글 여경미 기자
사진 임익순 기자

KEB하나은행은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각 지역의 WM센터, PB센터, 골드클럽으로 손님들을 초청해 자산관리 세미나와 아트 세미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18일 뒤늦은 한파로 인해 공공 얼어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곡PB센터는 투자에 관심 높은 손님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날 자산관리 세미나와 아트 세미나에는 투자 전문가와 아트어드바이저가 강의로 나서 손님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해 주었다.

투자 전문가는 "10년, 20년 주기의 과거 시장 환경을 점검하고 경제 흐름과 산업 패턴을 이해한 다음 2016년 펀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세계의 경제가 서로 맞물린 상황에서는 국가별 상황 대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자는 무엇보다 스스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산관리 강의가 끝나자 바로 '현대 미술의 트렌드'에 관한 미술 강의가 이어졌다. 아트어드바이저는 "현대 미술 작품 중에는 인간의 본성이나 철학적 물음을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작품을 보며 마음의 치유를 얻고 싶은 대중들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가인 아이 웨이웨이, 아요이 쿠사마, 아프리카 작가인 잉카 쇼니바레의 작품을 소개하며, 현대 미술의 흐름을 짚어냈다. 그 외에도 미술작품 공부법이나 작품을 선택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상세하게 소개해 손님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마음에 드는 작가를 먼저 찾고 그의 작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며 관심사를 확장시키거나 해외여행 시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방문하는 것을 가장 좋은 공부법으로 추천했다.

2시간 여 동안 진행된 세미나는 손님들의 큰 관심만큼이나 열띤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자산관리 세미나와 아트 세미나의 컬러배러이션을 통해 손님들의 이성과 감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간으로 평가받았다. 앞으로도 KEB하나은행은 한 발 앞선 자산관리 및 라이프케어 서비스로 손님 만족을 실현시킬 것이다. ♪

